

제 232 호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1977. 5. 1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집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강론□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강인찬 신부

크리스찬들이 알아듣는 완전한 뜻의 “성소=부르심”은 신앙의 위대한 신비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불러 존재케 하시고, 인간을 불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협력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며 완성케 하신다. 또한 성신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개별적 성소를 주신다. 신자 각자에게 갖가지 은총을 나누어 주시어, 교회 세신과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과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유로 바치셨던 착한 목자이신 구세주께서는 “모두 내게로 오라” 하시며 모든 사람을 당신 나라로 불러 들이신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오4,19)하시며, 따로 부르시어 직접적으로 당신 구원사업에 참여토록 부르신다. 이처럼 성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 뿐이다. 봉사하는 직책은 여러가지이지만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코린전1,4-6) 이러한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사제와 수도성소는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하고 가장 촉박받은 성소라 할 수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15) 아직도 양의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미려다 돌봐 주기를 원하시는(요한 10,16)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성소에 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느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나 하느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용기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바치는 용기와 하느님의 뜻과 세상을 간파한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대중과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육에 갇힌 사람들과 영육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곁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사회는 눈으로 보고서도 보지 못한 체, 귀로 들어서도 듣지 못한 체,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현자처럼 보이는, 비겁자들이 많은 사회다.

세상은 하느님의 진리를 전해줄 지혜롭고 용기있는 자들을 기다리신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하느님의 성소를 택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고 망설일 것인가? (고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 4 월과 5 월



누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어떻게 사람을 뱃이나 쇠망치로 때려 늘릴 수 있었던가?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가?

무허가 건물 단속은 불을 질러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가?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또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가톨릭 시보 4월10일자에 보도되었던 안양천변 판자촌 이야기와 그들을 도와준 정 일우 신부의 미담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었던가? 외국의 한 천주교 신부까지도 인류 공동체의 형제애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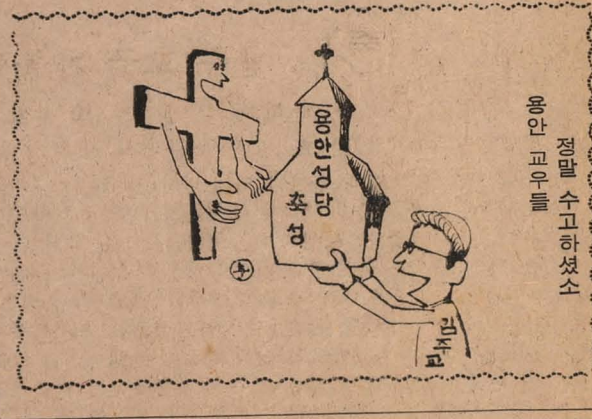
신문 사회면의 끔찍한 사진들을 보고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은 무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대학생들의 교외학습(郊外學習)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이 4월에 「교외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 여러 대학이 사실상 휴교상태에 들어간 학원의 현실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는 신민당의 성명이 나와야 하는가? (77년 4월 21일자 東亞일보 1면)

4.19 기념식에 학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교외학습이라는 명목의 휴강이 이루어지는데도, 4월 20일 K.B.S TV에 특집으로 방영된 「꿈과 낭만의 대학가」에 소개된 대학 교수들의 대답에서는 “대학 분위기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니 어느 말이 정말인가?

잔인한 4월이 갔다. 이제 어머니의 달, 5월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다같이 기도하자.

숲정이 산책



『주님의 시선과 베드루의 배반』

김 병 환 신부

우리는 얼마 전 사순절과 부활축일을 지냈다. 이 사순절 기간동안 특별히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루이다. 그분의 수제자라고 하는 어부 출신의 시몬베드루, 베드루는 그분의 수제자로서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힘이 세고 무뎠던 베드루, 수난 전날 저녁 발 뽀만디 아니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는 순진하기만한 베드루, 더우기 주님의 배반 예언에 “감히 어떻게 스승님을 배반하겠습니까?”하고 펄쩍 뛰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루, 아무튼 베드루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지내는 동안 스승의 모든것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자였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강하지도, 명석하지도 못한 베드루가 어떻게 해서 스승의 뜻을 따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엄청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으며 천국의 열쇠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주님과 그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이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스승을 두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세번씩이나 말을 하고난 베드루는 아무리 목석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오는 무거운 가책과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서 오는 죄스러움이 베드루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다. 그러기에 베드루는 그순간 자신의 나약함이 한없이 미웠을 것이고 배반이라는 무서움에 겁도 났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루는 세번째 그분을 모른다고 했을때 닭이 우는 순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스승의 시선을 쳐다본 것이다. 아마도 베드루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이나 따귀라도 한대 맞아야 마음이 풀리는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의 시선은 분노의 것도, 엄한 책벌이나 꾸지람의 시선도 아니었다. 사랑이 담뿍 들어 있는 시선, 철모르고 친진하기만한 어린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눈물로 용서를 청할 때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시선, 다시는 스승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당부의 시선, 그리고 이제부끄는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겠다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시선에 베드루는 더욱 죄책감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기에 그는 사랑이 많으신 스승을 저버

린 뼈아픈 자신의 분에 못이겨 집모퉁이로 뛰어가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베드루는 굳게 마음을 다진다. 다시는 스승을 배반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스승이라면 스승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간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스승의 사랑이 되살아나 베드루의 마음을 한없이 뜨겁게 한다. 결국 베드루는 스승을 위해 일하다가, 스승과 비슷한 죽음으로, 스승보다 더 가혹한 죽음으로 일생을 끝마친다.

베드루의 일생은 참으로 주님의 수제자다운 일생이었고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부풀게 한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루는 우리를 한없이 일깨워 주었다. 배반과 시선과 사랑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스승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스스로 자청했고 굳게 약속했다. 감히 어떻게 스승을 배반하겠습니까? 하고 장담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세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범하는 배반. 나에게 이익이 온다면...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 세번이 아니라 수 백번씩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기꺼이 나서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우리는 한번이라도 스승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승을 모른다고 한 뼈아픈 마음을 한 번이라도 달래 본적이 있는가? 더우기 매 회개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모시고 주님과 의 일치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을 한번이라도 뜨겁게 느껴 본적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 되어진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시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주님의 시선, 일곱 번씩 일흔번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시선, 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외면해야만 하고 거절해야만 하는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일 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적시할 때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계신다. 우리도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활짝 보자.



전주 교구 가톨릭 약사회 창립 (77년 4월 21일)

회장 박희보, 부회장 고수창, 간사 김영춘, 감사 은건기, 임실

상임위원 1지구 김현, 2지구 김예자, 3지구 이문식, 4지구 김을태, 5지구 박영실, 여약사 활여원

※ 약사회 모임에 참가한 회원 명단(지구별, 약국명칭 가나다 순)

1지구 <김계> 이화약국(황여원), <정음> 수도" (은건기), 정음" (김현), 천일" (정인천)

2지구 <군산> 동양약국(김예자)

3지구 <금마> 삼화약국(진성구), <이리> 길실" (박영자), 제길" (이문식), 성모의원(오정화 수녀)

4지구 <진주> 국민약국(고수창), 범모" (김영춘), 성원" (성원표), 영진" (김을태), 임" (임실), 대학병원(김창수), 성모병원(김경자 수녀)

5지구 <무주> 박이약국(박희보), 한길" (유수파), <진안> 중앙" (박영실)

※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교우 약사들께서는 순정이 편집실로 연락 주세요-광고제공: 교구평행, 순정이 편집실

문 정현 신부 면회기

지난 4월 22일 주교님께서 김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문 정현 신부님을 면회하고 오셨다. 교구내 신부님들을 대표하여 신부 평의회 의장이신 박 성운 신부님(팔마성당 주임)과 동생인 문 규현 신부님(고산성당 주임)이 함께 가셨지만 뺨지 못하고 주교님만 면회하고 오셨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가족만 겨우 면회를 할 수 있는 형편이다.

김해의 그 넓은 평야에 있는 그 좁은 감옥, 그 감옥 안에서도 좁더 좁은 감방에서 홀로 복역 중이신 신부님에 대해 주교님께로부터 들은 몇마디 말씀을 여기 적는다.

신부님의 건강 상태: 아픈 다리는 여전하시지만 그 어느때 보나도 건강한 얼굴로 주교님을 만나셨다 한다. 몸은 비록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 박박 짝은 머리때문에 더욱 야무진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하셨다

신부님께 드린 격려 말씀: 주교님은 9년만에 완성된 신·구교 공동 번역 신·구약성서를 신부님께 전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말로 옮기는데 9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터(복음화 현장)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이 요구되지 않겠느냐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조금하게 먹지 않도록 당부하셨다 한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신부님도 처음 생각했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교회의 가르침-역대 교황님들의 회칙, 공의회 가르침, 한국 주교단의 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순명하고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다 한다. 특히 손으로 꼽아서 기억했던 성 목요일에는 사제로서의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교님과 교구 사제들이 함께 봉헌하는 성유 축성 미사에 영혼으로 동참하셨다 한다.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교형 자매들께 신부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옥중의 신부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옥중에 계시는 신부님께서 당하지는 어려움에 동참하는 일에 항구해야겠다.

예수님의 뉘를 따라 처음으로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던 스테파노의 말씀이 귀에 쟁하다.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해 왔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51-52). 예언자들이 받는 박해가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 합 세움 신부는 공주로, 신 현봉 신부는 흥성으로 이동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신경의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배구집)
 전화 ㉠-9793
 원장이 종 두 (헬리교)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명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많이 찾아 주세요 □
석송 이 봉 구(아오스딩)
서 예 전
 때...4월 29일~5월 5일(7일간)
 곳...군산 제일 다실
 전화 2396, 5953

□ **직원모집공고** □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이상의 실력을 가진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30세 미만의 남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명압판 사진, 병적증명서 각 1통

※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접수기간 : 1977년 5월8일 오후 5시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9일 오후 2시, 본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601 가톨릭 센터내 본 조합 사무실
전화 ㉠ 3185

전주 임원 신용 협동조합
 (단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치않음)

각종 페인트 · 지물
 비닐 장판 · 표구재료 · 화선지
 K.S.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임 정 원(도민교)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 5986 · ㉠ 2765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성소 주일 행사 (오늘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강당, 교구 사제 양성위원회 주최)
 - ① 참가대상: 교구내 중, 고, 대학생 및 일반 청년 남녀 (특히 전주 시내 본당의 많은 참석 바람)
 - ② 행사내용: 가. 성소를 위한 미사 나. 강연...인체의 신비 (대학병원내과과장 안 특수 박사), 젊은이와 성소(안 복진신부) 다. 좌담회 라. 성체 수녀원 방문
2. 4지구 주일학교 성소 주일행사... 성체 수녀원 방문, 백일장 대회(오늘 오후 2시, 성체 수녀원)
3. 파티마의 모후 교시미움 아치에스 및 파티마의 성모상 전주 순례(오늘 오후 2시, 전동 성당)
4. 외국에 계신 신부님들이 부활절을 맞아 고향 자매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 보내 오셨습니다
지정할 신부(올 가을 귀국 예정), 이 병호 신부(공부 열심히 하고 있음)
유장훈 신부(주소: Rev. Joseph Yu/st. Peter's cathedral/196, Dufferin Ave./London, Ont./N6A LK8/CANADA)
5. 문정현 신부님께 노송동 본당 관내 다리 공소등 5개 공소에서 부활절 행사 후에 성금 6,000원 보내 주셨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5월 1일 공식미사 후, 강당
 2. 방지거 3회 월례회: 1일 오후 2시, 강당
 3. 주일학교 성모의 밤: 1일 오후 8시, 성모상 앞
 4. 성심부녀회 월례회: 6일<금> 어머니 미사후, 사제관
 5. 환자 봉성체: 5일 3일<화>
- 지난주 봉헌금: 106,32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영희
보좌 신부 박용중
사도 회장 박용중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L·M 아치에스 행사: 오후 2시, 전동
※ 본당내의 단원들 많이 참석하세요
 3. 반상회 일정: 중노 1가-봉송야·진달래반(2일<월> 박준구택)/개나리·모란반(3일<화> 임벨라도택)/백일홍·난초반(4일 <수> 합테레사택), 중노 2가-백합반(5일<목> 안마리아택)/장미반(6일 <금>)/목련반(7일 <토>)
 4. 견진성사: 8일까지 마감(영세증명서 첨부 바람) 준비교리 <9~14일>오후 8시 시작
※ 출석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은 성사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협 임시총회 및 소풍·주일학교 소풍: 8일<일> 현 지미사 <12시>
 6. 어린이 영세식: 7일<토> 오후 3시 태부모·님과 함께 2시 반까지 사무실로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45,7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확대회의: 미사 후
 2. 신축위원 모임: 매주<일> 미사 후
 3. 성서특별교리: 9일부터, 전 교우님들 신·구약 공동번역 성서 꼭 지켜주시고 나오세요
 4. 신심 단체 모임 안내: 순결하신 모후 L·M <월> 오전 11시/성서동지회(B·F)<수> 오후 7시 반 /J.O.C 동신자의 모후 L.M<목> 오후 7시 반 /치명자의 모후 L.M<금> 오후 7시 반/학생 B·F<토> 오후 4시/학생 은방울 썸<일> 미사 후
 5. 성가 연습: 직장인·학생 <화> 오후 8시/어머니 <토> 오전 11시
 6. 신축 헌금: 김영숙(5만원) 누계: 5,865,500원
- 지난주 봉헌금: 44,00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축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 (51명), 공식미사 중
1. 신자들의 기도: 장동주, 홍안나, 박산기, 공순애, 유미경
 2. 사도회: 2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 바람
 3. 신림민 교무금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4. 익명으로 특별헌금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엠프시살(4십만원), 제병대(2인, 6만원), 미사주(7천원), 상호(6천원)
 5. 복자회 임원모임: 4일<수> 저녁 8시
※ 신·구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6,2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공동체 묵상회: 6일 저녁 8시~8일(2박 3일) 6일 저녁 7시 반부터 접수 ※ 본당 설립후 처음 갖는 묵상회에 1세대에 1인씩은 꼭 참석하세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3. 교무금 완납하여 어려운 본당 살림 도움시다
- 지난주 봉헌금: 33,010원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첫 영성체 할 어린이는 교리반에 꼭 보내 주세요
 4. 애령회 기금 조달에 협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향나무 10주 기증(전동 김환철 신부님) 애령회에 병풍 1점(민예사 김한영씨)
- 축 결혼! 전종근씨 4남 전향호(바로로)군, 유공현씨장녀 유정숙양, 8일 낮 12시, 가톨릭 센터 <주례 이대권(바로로) 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67,86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파티마 모후 교시미움 아치에스 봉헌식: 2시
 2. 스카폴(聖衣) 착복식: 저녁 8시
 3. 목주기도 10만번: 성모 성월중
 4. 성소주일 어린이 미사: 2시, 수녀원
 5. 중·고생 체육대회: 5일, 성심에서
 6. 사도회 월례회: 저녁미사 후
 7. 성화회: 11시
 8. 예비 신자님들 오늘 중으로 사무실에 등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3,290원